

관찰일지

나건우

September 25, 2024

관찰 대상

관찰 대상: 자취방 건물과 옆 건물 사이의 좁은 틈에 떨어져 있는 **담배
꽂초**.

9월 5일 목요일

- 건물과 건물 사이의 틈에는 세 사람 정도가 서 있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있음.
- 그 곳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흡연 후에 담배 꽂초를 그곳에 버리는 것으로 여겨짐.
- 그 틈에는 턱이 하나가 있는데, 턱을 기준으로 높이가 높은 쪽보다 낮은 쪽에 담배 꽂초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.
-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담배 꽂초가 젖어 있었음.

9월 7일 토요일

- 지난 번에 관찰했을 때보다 그 수가 훨씬 더 늘어 있었음.
- 지난 번 관찰 때 본 콩초들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음.
- 지난 번에 본 콩초들은 비에 젖었다가 마른 탓에 모양이 전반적으로 구겨져 있었고, 그에 비해 지난 번에 보지 못한 새 콩초들은 비교적 모양이 잘 유지되고 있었음.
- 오늘도 여전히 턱을 기준으로 높이가 낮은 쪽에 담배 콩초의 수가 몰려 있었음.

9월 9일 월요일

- 담배 공초의 수는 지난번과 비슷하게 느껴졌음.
- 실제로는 지난 주 토요일에 관찰한 것보다는 더 많은 수의 공초가 떨어져 있었을 것이지만, 상대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 공초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 같지는 않았음.¹

¹아마도 주말 동안에는 인근의 건물에 출근하거나 계속 머무르는 사람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, 지난 번에 느꼈던 담배 공초 수의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.

9월 10일 화요일

- 오늘은 담배 궤초가 치워져 있었음. (누군가가 궤초를 치운 것 같음.)
- 몇 개의 궤초가 떨어져 있기는 했는데, 누군가가 궤초를 치우고 난 다음 다른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고 궤초를 버려서 생긴 것이 분명함.²

²오늘 본 궤초들은 생긴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궤초라는 것을 알 수 있음. 10개 남짓한 궤초가 떨어져 있었으므로, 하루에 최소 10개의 궤초가 이 곳에 버려진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음.

9월 12일 목요일

- 오늘은 담배 공초가 이곳 저곳 널부러져 있었고, 그 수가 아주 많았음.
- 또, 오늘은 담배 갑 자체가 버려져 있기도 했는데, 비에 젖어서 갑이 거의 찢어질락 말락 했음. 담배갑 내부에는 공초가 아주 많이 있었다.³

³따라서 이 담배 갑은 담배가 다 떨어져서 버려진 것은 아니고, 누군가가 담배를 이곳에서 피우려고 하다가 담배 갑을 떨어뜨려 담배 갑이 비에 젖어 그냥 그 자리에 버리고 온 것일 가능성이 높음.

9월 14일 토요일

- 지난 번에 관찰한 물에 젖은 담배 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음.
- 또, 오늘 처음으로 두꺼운 시가(cigar)가 떨어져 있는 것을 목격했음.
다섯 개피 남짓이 떨어져 있었음.⁴

⁴보통 떨어져 있는 담배는 일반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담배인데, 두꺼운 시가 몇 개피가 떨어져 있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님.

9월 16일 월요일

- 물에 젖은 담배와 시가는 그대로 있었음.
- 담배 공초의 절대적인 수도 급격하게 증가했음. (토요일에 관찰한 양의 두 배 정도는 되어 보이는 양이 떨어져 있었음.)
- 지난 주 토요일에 관찰한 시가의 수가 증가한 것 같지는 않았음.⁵

⁵아마 시가를 피워 본 사람이 독한 냄새가 싫어서 한 갑을 채 피우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음.